

30년전 우리는③ : 1974년 3월



“책으로 민중이 눈뜨는 날, 이 한 조각 늦춰는 어찌 손금에 비기리”

어떤 자료를 보다보면 지면 한 구석에 쓰여진 한 마디가 더 재미가 있는 때가 있다. 이번에 1974년 3월의 이야기를 뒤적거리다가 그런 재미(?)를 느꼈다. 그건 ‘疎外者’라는 말이다. 《도협월보》 3월호 21쪽 하단 박스에 실린 ‘KLA코너’는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의 문제를 짚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단순하게 ‘變’이라고 적어두었는데, 누구일까?)는 미국이 겪고 있는 아픔의 원인을 소외로부터 찾고, 경직된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무법자가 아닌 탄력성을 가진 입법자인 지각있는 소외자의 활력을 포용할 수 있는가를 미국이 수립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끝마무리에 ‘疎外者, 그것은 우리 圖書館人들에게는 너무도 친숙된 單語이다. 國家로 부터 社會로 부터 言論으로

부터 大衆으로 부터 우리는 疎外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疎外者일까?’라고 적고 있다. 미국의 소외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불쑥 도서관인의 소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나름대로 연관성을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1970년대 답답한 사회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여야 할 도서관인들의 현실을 미국과 대비시켜 보다보니, 미국의 과제라고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도 현 사회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인 도서관인들의 창의력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본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심정이 짧은 글에서도 충분히 전해져 온다. 글의 힘을 새삼 느낀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소외감을 전혀 덜어내지 못했다. 맞나? 만일 이 말이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도서관인들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이 소외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어떤 사회에서도 도서관은 근본적으로 소외라는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30년전 우리는'을 쓰면서 새로운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질기도록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소외의 문제, 즉 원인과 현상, 극복의 노력 등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문제의 본질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당시에도 2월과 3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여러 회의가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아마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한국도서관상 심사위원회가 아닐까 한다. 1974년이 제6회였으니 올해는 당연히 제36회가 되겠다. 올해에도 여러 도서관과 도서관인이 상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는 한국도서관상이 공적상, 연구상, 근속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로 통일된 현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협월보》 3월호에 실려 있는 심사위원회(2월 14일 있었다) 회의록을 보면 심사와 관련해서 상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록을 보다 보니 지난 1월 24일 별세하신 고 윤병태 교수(당시에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근무)를 개인공적상으로 결정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당시 개인공적상의 경우 개인 16명(15명은 사전 추천되었고, 윤병태 씨는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한 위원에 의해 추천되었다) 중 한 사람만 결정된 것이니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다. 이어 열린 2월 22일의 이사회에서는 1973년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하면서 회비 미납이 많은 점과 출판물 판매대금 미수금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회비 미납은 학교도서관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학교도서관 운영재정의 열악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97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다. 3월 8일 한국과학원 강당에서 열린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받았었는데, 1973년 4/4분기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로지 협회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은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1973년 4/4분기 보조금 문교부 반납과 관련해서는 1973년 당시 받은 보조금 중 65만원을 이미 집행하여 이의 반납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협의했으나 반납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1974년 자체 예산으로 반납하겠다고 문교부의 양해를 구해 두었다는 사무국장(박대권)이 보고하고 있다. 그런 사정으로 1973년까지는 별도로 시행된 독서주간(9월)과 도서관주간(4월)을 독서주간으로 통합해서 실시하고, 도서관학총서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의 사정이 너무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장면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협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하신 선배들의 노고가 새삼 고마울 따름이다.

《도협월보》 3월호 '뉴스'에 의하면 대구시립도서관이 새로 건물(구대구지방법원청사)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3월 1일 공식적으로 이관하였다. 이번 이전으로 대구시립도서관은 서울시립 남산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수산협동조합중앙회에 도서실이 신설되었는데, 전문직사서를 채용하여 적극적인 도서관 봉사를 도모할 것이라고 소식도 기록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은 1973년 11월 소련과 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 11개국 15개 도서관에 자료를 교환하자는 공문과 관련 책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없다는 소식도 실려 있다. 국회도서관은 1973년 말 국회법 개정으로 해외자료국을 설치하고 소련과, 중화과 등을 신설, 해외자료교환업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준사서자격취득강습회를 3월 12일 남산시립도서관에서 시작했다. 이 강습은 당시 부족한 사서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3,4월 경 5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974년은 3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59일간 실시되었다. 그 해 제12회 강습회는 5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수강희망자가 많아(168명) 부득이 70명으로 증원하고, 소양과목(도서관학개론과 국사) 시험을 실시해서 수강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당시 개설된 과목은 도서선택과 수서등록, 도큐멘테이션, 도서관사, 도서관조직관리론, 목록법, 분류법, 참고업무 및 참고자료, 서지학, 시청각자료이며 특강, 사례연구 및 견학이 함께 진행되었다.

문교부에서는 1974년도에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서와 운영지침서를 시달하고 이를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다. 지침서에서는 1교 1개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각 시·도

에는 학교도서관 담당장학사를, 각급 학교에는 사서 및 사서교사를 지명하도록 하고, 운영비로는 자율적경비에서 최대한의 도서비를 염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학교 1도서관 설치'와 사서교사 배치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은 흘렀어도 우리는 거의 성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 교육당국은 1974년 왜 그런 지침서를 시달했는지,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기를 바랄 뿐이다.

1974년 3월에는 마을문고를 기억나게 한다. 1961년 6월 엄대섭 선생에 의해 시작된 마을문고 운동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14년만에 3만5천개가 설치되었다. 이에 (사)마을문고는 3월 26일 한국과학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한국도서관협회와 113명의 유공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였다.



(1974년 (사)마을문고에서 전달받은 기념패의 뒷면)

기념패에는 “책으로 민중이 눈뜨는 날, 이 한 조각 늦쇠는 어찌 순금에 비기리”라고 적었

다. 아, 너무도 아름답고 가슴 뜨거워지는 글귀가 아닐 수 없다. 운동에 담긴 시적인 마음이 운동을 진정 아름답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만5천개의 문고 설치로 1차적인 설치목적을 완료하였기에, 향후에는 질적인 성장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설치된 문고 중 30%는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마을문고 운동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새마을문고 운동으로 남아있는데, 그 굴곡의 역사는 거듭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마을문고 운동이 한창이던 1960~70년대에는 국제 도서관계도 이 운동에 주목했다. 또한 1980년에는 엄대섭 선생이 박사 이사이상을 수상하여 마을문고가 세계적인 도서관 운동임을 입증하였다. 1974년 3월에도 엄대섭 선생은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하고 추진해 온 업적을 인정받아 '외솔상'을 수상하였다. 이렇듯이 운동은 도서관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이 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우선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2001년 발행한 『새마을 文庫運動40年史』를 보시기 바란다.

국립중앙도서관 관보인 《도서관》 3월호는 특집으로 '독서학교의 운영과 방향'을 다루었다. 독서지도는 여전히 우리 도서관들의 중요한 관심사인데, 당시에 도 독서급수제도와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한 독서운동단체가 독서능력인증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과 연계해 여전히 시간의 골짜기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단절된 모습으로 반복되는 사건들에 대해 믿음을 잃지 않고, 현실에서 끊임없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본 것은 '홍경래 반란기(필사본)'라는 고전해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해설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홍경래의 거사 원인과 취지 등을 알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어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하여 길게 소개한 것이다. 도서관 수준은 소장한 자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74년 3월을 다시 짚어보면서 다시 한 번 어

려운 시기를 부단한 노력으로 이겨내 지금의 도서관계를 만든 선배 도서관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얼마만큼이나 발전했을까? 1974년 당시 한국도서관협회 총회를 준비하는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재정문제나 회원 가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음을 보면서 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노정을 계속하다보면 해답과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고 이번 호 글을 마친다. (지난 호에서 전남도교육위원회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을 하였는데, 1975년에도 계속 되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몇 몇 자료에서는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좀 더 찾아보고 확인해 본 후에 알려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당시(1974년)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 연회비가 얼마였을까? 600원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당시 《도협월보》 사무국 일지에 보니까 '3월 4일 북괴규탄 성명서 발표'라고 적혀 있다.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성명서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해 졌다. 숙제로 남겨둔다.)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fel.net]